

2024. 6. 28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미래공간기획관  
미래공간기획담당관

미래공간기획담당관	김창규	02-2133-7640
건축디자인혁신팀장	최훈	02-2133-7609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4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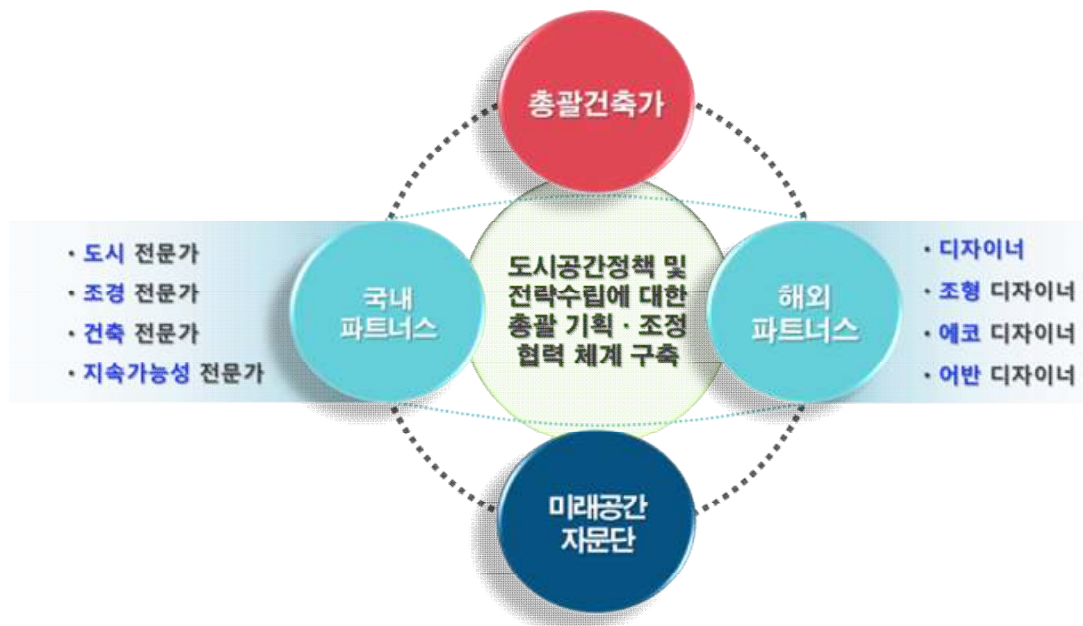
## 서울시,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 연임 위촉

- 오세훈 시장, 27일(목) 위촉장 수여...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(2년) 추가 연장
- '21년 신규위촉 후,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도시 공간 품격 향상에 기여
- 100년 서울 미래구상 등 주요 시책 사업의 일관성있는 추진 위한 연임
-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와 미래공간 자문단 구성해 시책 사업 지속 수행 예정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(목)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를 연임 위촉하였다.
-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는 학식과 실무역량을 모두 갖춘 도시·건축전문가로 2021년 7월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 이래, 2023년 7월 연임(1년)하여 서울시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.
  - 특히,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, 도시·건축디자인혁신 사업, 정원도시 서울(서울국제정원박람회, 남산 하늘숲길 조성 등), 감성도시 구현, 서울형 수변감성도시, 그레이트 한강, 100년 미래서울 구상 등 ▲서울 도시품격 향상 및 미래도시를 고려한 도시공간전략 자문, ▲도시건축정책 연구 및 공공

건축사업 자문, ▲국내·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건축가 초청 등 건축문화교류 확산을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였다.

-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 공간환경의 다양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100년 서울 미래구상 등 주요 추진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가 연임(2년) 결정하였다.
  -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100년 서울 미래구상,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, 도시건축디자인 혁신, 용산 국제업무지구, 그레이트 한강 등이 있다.
- 이번 연임 위촉에 따라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026.6.30.까지 연장되며, 앞으로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 및 공간환경사업 전반 총괄 기획·조정 등 시책 사업의 주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.
- 아울러, 서울시는 서울총괄건축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서울의 도시공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(가칭)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-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(가칭)는 국내·외 저명한 건축가들로 구성하여 시 도시건축정책과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분야별 기획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총괄건축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  -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는 국내건축가(도시, 건축, 조경, 지속가능성 분야) 4~5인 및 해외건축가(디자인, 조형, 에코, 도시 분야) 4~5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.
  
- 한편, 미래공간자문단은 서울 도시공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·건축·조경·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  - 자문단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공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.
  
-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강병근 총괄건축가의 연임위촉과 함께 일관성 있는 시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.”며 “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(가칭)와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여 서울총괄건축가와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건축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불 임 위촉장 수여식 사진 1부. 끝.

□ 위촉식 사진



<오세훈 서울시장 -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>